

건강 칼럼

노인 치사율 높은 코로나19... '고농축 면역증강제' 로 공포 탈출

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세계 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팬데믹(pandemic, 세계적인 대유행)'을 선언하면서 한국 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하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다. 16일 방역당국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1일 0.4%대에 머물던 국내 코로나19 치명률은 전날 0.9%를 넘어섰다. 연령대별로 비교했을 때 전날 오전 0시 기준 확진 환자 8162명 가운데 80대 이상 고령 환자가 9.51%(263명 중 25명)로 가장 높았다. 순서대로 70대 5.33%(525명 중 28명), 60대 1.38%(1012명 중 14명), 50대 0.38%(1568명 중 6명), 30대 0.12%(842명 중 1명), 40대 0.09%(1141명 중 1명) 등이다. 또한 국내 사망자의 90%가 60세 이상 고령층으로 확인되었다.



박경우
서울 관해병원 원장

이는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약한 중·고령층에서 치명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코로나19 치료제가 아직 나오지 않아 개인위생에 예민해져 있으며, 날로 공포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모든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높고,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쉬워 주의가 필요하다.

몸에 좋은 식품으로 면역력을 보강해주는 것도 좋지만, 빠른 시기에 면역체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고농축 면역증강제'가 도움이 된다. 고농축 면역증강제는 천연 7종 생약의 미세 입자와 및 순금 피막 처리를 거친 약물이며, 미세 입자화는 최소한 면이 1/1000nm 이하인 나노입자(nano-particle)이다. 이는 체내 침투력을 상승시켜 짧은 기간에 면역 체계가 강화되는 치료효과

를 기대할 수 있다. 고농축 면역증강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면역 세포 자체를 활성화시켜 신종 바이러스, 대상포진, 폐렴 등 치료 및 예방에 효과가 있다. 질병 초기에 고농축 면역증강제를 통해 바이러스를 억제하면, 치료 효과도 빠르고 이후 질병의 중증화이나 합병증 이행을 저지할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과 면역력 관리는 평소 식·생활습관 개선이 중요하다. 의뢰기관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방문을 자제하는 것이 좋고, 불가피하게 방문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나 손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리는 것이 좋다. 외출 후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을 씻는 등 개인위생 관리에 신경을 써야한다. 잦은 음주와 흡연은 멀리하고 영양소를 고루 갖춘 식단을 권장한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올해도 풍년을...”



16일(현지시간) 중국 티베트 자치구 라싸의 한 마을에서 주민들이 불철 쟁기 의식에 참석해 씨를 뿌리고 있다. 이날 티베트의 주요 경작지에서 한해 풍년을 기원하는 불맞이 전통 의식이 열렸다.

독자제언

음주운전은 범죄행위, 우리 모두의 불행

코로나 여파로 지역 소상공인은 물론이고 대기업, 공공기관 등 모든 분야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코로나 전염 확산이란 두려움 속에 군민의 안전과 건강이 위협받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이와 관련 고창경찰서(서장 이상주)에서는 그동안 군민들의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검문식 음주단속을 지양하고 음주 용의차량을 대상으로 선별단속을 실시함에 따라, 이를 악용한 음주운전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음주사고로 인한 군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올해 들어, 관내에서 12건의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중 4명의 귀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음에도 지금도 음주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에 고창경찰서에서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기관단체 서한문 발송, 교통사고지점 플래카드 게시, 마을·상가 등을 순회하며 홍보전단지 배부, 마을주민 홍보 방송 등 음주운전으로 부터 사회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교통문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다.

음주사고 근절을 위해 군민 모두가 다 함께 동참하기 위해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한다. 첫째, 음주운전은 범죄행위로 모두의 불행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둘째, 음주운전은 내 자신·내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이며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셋째, 술 한잔 만 마셔도 면허정지 수치(0.03%)에 해당 될 수 있다. 지난해 6.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운창호법) 되어 음주운전(중과실) 치상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의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린다. 군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민·관의 구별이 있을 수 없다. 이제 는 나의 동료·지인들의 음주운전을 관대한 시선으로 바라만 보아서는 안 된다.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성숙한 교통문화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다 함께 동참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절대적 필요하다.
유중수 고창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설

성남 은혜의 강 교회의 나쁜 본

서울 경기 쪽에서 보고되는 코로나 확산 뉴스를 보면 두려운 생각을 떨칠 수 없다. 그쪽 신규 확진 환자의 수가 대구와 경북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구로구 콜센터 집단 감염 사태도 문제지만 성남에 소재한 은혜의 강이라는 이름의 교회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사태가 나쁜 본보기로 떠오르고 있다. 아제만해도 40여명의 감염이라고 했는데 하루 사이에 52명으로 불어나 버렸다. 은혜의 강 교회가 보여준 불행은 많은 것을 생각해 한다. 개신교인 그 교회는 분명히 신천지 집단의 감각없는 반사회성을 이단이라며 비난하고 매도했을 터이다. 그렇다. 신천지 집단은 코로나 19의 온상이라는 점에서 꾸짖음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은혜의 강 교회가 보여준 행태가 가관이다. 은혜의 강 교회 측은 정부와 방역 당국의 호소에 따라야 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매주 들어오는 헌금이 탐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소금을 입속 분무소독 후 현장 예배를 강행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확진 환자가 8천3백명에 육박하고 사망자도 83명이나 되는 것은 보통 사태가 아니다. 실시간대로 보도되는 뉴스를 보면 두려울 뿐이다. 신규 확진 환자가 감소세라지만 그래도 하루 밤 사이 여러 곳에서 집단 감염 환자가 집계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전북도가 도내 교회들에게 일요일 예배와 다른 집회도 자제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것은 당연한 요구이다. 전북도의 그러한 요구와 교회들의 순종적인 협조 때문에 우리 전북이 다른 광역시도와 달리 안전한 지역이 되고 있다. 그런데 여기 전북도와 방역 당국에 당부할 것이 더 있다. 코로나 19와 관련된 가짜 뉴스들을 색출해 일반 시민들에게 알려줘야겠다. 확인되지 않은 코로나 퇴치 정보들이 범람하고 있는 까닭이다. 성남의 은혜의 강 교회가 보여준 소금을 분무 소독도 가짜 정보에 의한 것일 터다. 따라서 전북도와 방역 강구를 더욱 긴장하고 더욱 경계해야 한다. 몇몇 나약한 교회들에서는 엉뚱한 짓거리를 핑계 삼아 현장 예배를 강행하려고 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발전 현안 계속 도모하고 추진해야

지역 발전은 도민 모두의 바람이고 염원이다. 전북도는 뜻을 이루지 못한 현안에 주목해야겠다. 지난해 덕걸이를 하되만 현안들을 챙겨야 한다. 언제 쯤이나 제대로 추진될 것인지 답답하다.코로나 19 때문에 긴장감이 높은 때라지만 그래도 추진할 것은 추진해야 한다. 코로나 확산 방지에 힘을 쏟는 중에도 할 일은 해야 한다. 코로나 확산 방지에 전국적인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중에 지역 현안도 계속 추진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북 발전은 도민 모두의 염원과 소망이다.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너와 내가 따로 없어야겠다.다들 선공후사의 정신 태도를 보여야 한다. 그게 없다면 지역 발전은 요원하다. 다시 말하거니와 지역 발전은 전북도만 이끌어 가는 게 아니다. 군산 경제 살리기 대책을 호소하는 것처럼 지역의 다른 현안에도 정부가 눈길을 돌리도록 해야겠다. 군산이 수년 전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이야기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